

손병석 차관, 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줄 것” 당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장 점검… 안전사고 예방도 지시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(토), 서울시 강북구 번동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,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동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주거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,
 - “시설개선사업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이고,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,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”하였다.
- 또한, 손 차관은 동 사업이 금년 7월 추경에 300억원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면서, 동 사업의 본 예산과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모두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
 - 더불어, 공사 진행과정에서 “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강조했다.

2017. 10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1차관님 노후시설개선사업 현장방문 계획

□ 방문개요

- 목적 :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사업 단지 현장 점검
- 일시 : '17.10.28(토) 10:30 ~ 11:45
- 장소 : 서울시 강북구 번동 230, 번동 5단지(관리사무소)

□ 참석자

- (국토부) 제1차관님, 공공주택공급과장 등
- (L H) 서울지역본부장, 주거복지본부장 등 LH 관계자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0:30	-	○ 차관님 현장도착 (도봉구 번동 230, 번동 5단지 관리사무소)	
10:35~10:55	20'	○ 단지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 브리핑 (관리사무소 회의실)	보고 : LH 부장
10:55~11:45	50'	○ 시설개선사업 현장 시찰 및 단지현황 점검 (출입문 교체공사, 단지 포로도장공사, LED 옥외등 교체공사 등 시설개선 현장 점검)	안내 : LH 부장